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 보고회

영북중학교, 주제중심 통일대비 역량강화

영북중학교(교장 장기문)는 9월 18일 오전10시부터 영북중학교 목련관 영어 강의실에서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수업연구, 체험부스 운영, 전시물 참관, 시범학교 운영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수업연구는 국사과 유아를 교사가 2학년2반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역사 속의 통일'이란 주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통일 사례를 찾아보고 역사 속 사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남북한의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체험부스는 7개를 운영했는데 통일 음식체험, 통일 페이스페인팅, 통일 클레이아트, 통일 단체그림 그리기, 통일 끝판벨, 통일 기원 풍선만들기, 통일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통일 축구대회는 경·평 축구대회를 연상시키는 통일 축구대회로 활기차고 희망

적인 통일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시물 참관은 통일 관련 특별활동 부서 학생 작품, 창의적 재량활동 학생 작품, 통일 토요일 무보고서, 통일 명상의 시간 결과물, 통일관련 각종 교내외 행사 학생작품 및 사진을 전시해 통일의지를 고취시켰다. 이어서 개최된 시범학교 운영보고는 '주제중심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주제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지적토대를 형성 ▶통일문화 조성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학생중심의 능동적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의 지 고취를 운영중점으로 2006년3월1일부터 추진해온 활동을 보고했다. 한편, 영북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통일 연구시범학교로 오

는 2008년2월28일까지 주제중심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대비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영북중학교는 9월18일 오전10시부터 목련관 영어 강의실에서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은 통일관련 각종 활동결과물 전시회)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발전”

영북 지역 초등학교 총동문회 발기인 총회

영북 지역 5개 초등학교(영북, 운암, 보광, 대화산, 산호) 졸업생들이 하나로 모여 총동문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영북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총동문회 발기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테마로 진행된 이날 총동문회 발기인 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임수홍 의장은 “1924년 개교 이래 70여년이 흘러 동문회를 출범시키는 자리에 임시의장이라는 의미 있는 자리를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윤국(15회 동문) 초대 총동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오랜 세월동안 부족한 게 있고 무언가 하려고 해도 여건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이제야 총동문회가 발기되었으며 시작은 미약하나 이제부터라도 잘

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동문회가 창립되었지만 당장 발전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북초등학교 민원기(12회 동문) 교장은 축사에서 “모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제 동심의 발원지인 영북초등학교에서 열심히 일할 것이며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켜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각 기수별 인사가 있었으며 5전차 대대장으로 근무하는 최승기 운암초 6회(영북 23회)동문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영북지역 초등학교는 원래 5개 학교(영북초, 운암초, 보광초, 대화

산초, 산호초)가 개교했으나 7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이렇다 할 동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가 인구의 감소등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영북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가 모두 폐교되어 영북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총동문회를 구성하는 여건에 의해 지난 1월 18일 영북 지역 초등학교 총동문회 창립

준비위원회를 준비위원 17명으로 구성, 발족했다. 이후 가두 홍보, 동문회장 입후보자 공개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234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총동문회 발기인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인하여 총동문회가 구성된 것이다.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영북 지역 5개 초등학교(영북, 운암, 보광, 대화산, 산호) 졸업생들이 하나로 모여 총동문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제1회 수리제 학생·주민 한마음

경북중학교 축제 다채로운 발표무대 마련

경북중학교(교장 심동섭)는 평소 학생들이 갖고 싶은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축제의 마당 첩회 수리제가 9월27일과 28일 이틀간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27일은 체육대회, 28일은 놀이마당, 가장행렬, 특별공연,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발표의 장이 마련됐다.



경북중학교는 평소 학생들이 갖고 싶은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축제의 마당 첩회 수리제가 9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축제에는 교내에 틈새 공간을 활용한 십자수, 종이접기, 한지공예, 비즈공예, 과학실험, 사진, 미술, 시화전, 도자기 공예, 야생화 사진전, 모형물 등 500여점의 학생과 교사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처음으로 개최한 축제 '수리제'라는 이름은 학생, 교직원들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채택되었다. '수리'는 으뜸,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솔'의 옛말로 경북중학교의 교목인 소나무를 상징하는 뜻으로 수리제로 했다고 한다. 심동섭 경북중학교 교장은 이 축제를 계기로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소나무처럼 펴고 굳은 기상으로 이 나라에 으뜸가는 동량이 되고 꿈과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축제에는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의 우정출연과 송우지구 각 학교장 및 50여명의 기관 단체장, 그리고 6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축제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경북중학교는 1954년10월25일 화산고공민학교로 3학급이 설립 인가되어 2007년2월14일 제51회 졸업생을 배출해 총5천622명이 졸업했으며 동문들 중에는 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함께 공부해요

通論(동론) 36

無用之辯과 不急之察은 棄而不治니 若夫臣之義와 父子之親과 夫婦之別은 則日切磨而不舍也 니라. 棄 버릴기. 磋 갈자

무용한 변론이나 급하지 않은 일들은 버려 두어서 아랑곳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군신의 의리, 부자의 친애, 부부의 분별 같은 것은 날로 강구하여 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지 않고 감마하여 인간의 도리를 다하도록 힘써야 한다. 윤리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상은 통론이다. 문의: 011-354-6485

슬데없는 변론이나 급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는 것은 무익 할 뿐 아니라 도리어 마음을 해치게 되니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군신의 의리, 부자의 친애, 부부의 분별, 같은 윤리도덕에 관한 일들은 쉬

이와 같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입시위주의 학 습적 교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교육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실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 그 한사람은 또 다른 커다란 과오를 저지를 수 있으며, 또한 소수 무리의 실수를 다수의 실수인양 치부하는 것은 무관한 다수를 가해자로 내모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보살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이번 송우4단지 고운마을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으로 자매결연 협약을 맺게 되는데 대하여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아이들에게, 또한 이웃 주민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주부영예기자단 신복면지부장)



양 주 승 본지 지문위원



윤종성의 국제비즈니스미국영어



22. <가정방문> 초대 (6)

- * 집 처럼 편안하게 하세요 메이크유어셀프 애틀 <Make yourself at home.>
- * 부인, 좋은 집에 사시네요 미세스캐리, 디시서나이츠하우스 유리빈 <Mrs.Kelly, This is a nice house you live in.>
- * 여기, "마크"가 포도주 한 병 갖고 왔습니다 "마크" 브라더마블름와인 히어 <Mark brought a bottle of wine here.>
- * 고마워요, 맥주 더 드릴까요? 오, 맹스, 메이비브링 애너더버어? <Oh, thanks, may I bring another beer?>
- *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핫수어 웨보리스포츠? <What's your favorite sports?>
- * 헬스를 주로 합니다 아이고우인 휘트니스 <I go in for fitness.>
- * 일종의 보디빌딩 이네요 <It's kind of body building, isn't it?>

문의 : 윤 종 성 (017-723-4977)calyoon@nate.com

명품학교 만들기 ⑧ | 선단초등학교

맞춤식 책읽기를 통한 독서 습관 기르기

독서환경 조성은 도서실과 장서를 구비하는 것



이상식 교장 오병열 교감

선단초등학교(교장 이상식)는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진단하고 각자의 능력에 알맞은 맞춤식 책읽기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진단 및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했다. 예를들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서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으며 장서 확충을 위한 기증운동 실시, 도서실 및 학급도서를 확충하고 사서 어머니회를 조직하여 도서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도 했다. 또 개인별 맞춤식 책읽기를 적용했다. 개인별 독서능력 진단을 위한 진단평가를 실시해 평가를 통해 진단한 능력별 독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학년별 독서토론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했다. 주1회 도서실 활용수업을 실시하고 학년별 권장 도서를 도서실에 비치했다.

지난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해 4월에 완공했다. 또 부족한 장서를 보충하기 위해 도서기증운동을 실시했다. 이 운동에는 선단초등학교 졸업생 및 어머니회의 기증이 이루어졌고 학교예산으로 1차 도서구입이 이루어졌으며 8월에는 동문회 기증으로 현재는 1만40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중 2차 도서구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서실 운영이 2003년부터 운영되어 학생들의 책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았으나 자신에게 맞는 독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독서를 어려운 과제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있었으나 재미있고 흥미있는 책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독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서실을 찾는 학생이 점차 늘고 있으며 학급에서도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서를 좀더 친한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

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25명의 어머니가 사서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독서진단을 통한 독서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맞춤식 독서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선단초등학교는 지난 6월 경기도지정 국어과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선단초등학교 이상식 교장은 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보수집 검색라인 부족해 컴퓨터 20대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검색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검색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교장이 이처럼 독서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책을 읽지 않으면 창의력을 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각매체로는 창의력 향상이 어렵다. 책은 창의력을 향



선단초등학교는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진단 및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했다.

선단초등학교는 또 다양한 독서 체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 1회 도서실 활용 수업을 실시하고 독서 급수제를 년 1회 실시하고 다양한 독서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월20일 학급별 다양한 독후 활동을 시상했으며 오는 10월에는 독서 끝판벨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에는 학년별 독서 토론대회를 실시하고 12월에는 독서 급수 표창 및 다독이를 시상하고 매달 독서소식지를 발행하여 독서 리즈대회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현재 선단초등학교 도서관에는 8천796권의 장서가 있으나 이중 2천611권은 성남도서관 소유의 도서로 2007년10월 반납해야 된다. 또 낙후되거나 파손된 도서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선단초등학교 도서관의 자료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도서실에서 수업하기 위해서는 좀더 넓은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실 공간 확충을 위해 약 2천500만원의 예산을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 세우고

선단초등학교의 맞춤식 책읽기를 통한 독서습관기르기 교육은 도서실 북도 벽을 허물고 교실의 약 2.5배 크기로 확장하고 한쪽 벽 유리창을 통유리로 조성해 좀더 쾌적한 도서실 환경을 조성했다. 또 자료 콘텐츠를 확충했다. 어머니회에서 4월21일 알뜰 바자회 행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학교 도서관의 도서로 기증했다. 또 선단초등학교 졸업생이 200여권의 도서를 5월에 기증했고 4월 도서실 운영비중 자료구입비로 45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했고 8월 선단초등학교 동문회에서 150만원 상당의 서가 및 500만원 어치의 도서를 기증하기도 했다. 선단초등학교는 사서어머니회를 조직하여 월요일부터 수요일

상시킨다. 자기세계를 만들 수 있고 구축할 수 있다. 이 교장은 중학교때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다고 한다. 그때 주인공이 가슴에 와 닿았다.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를 봤을 때는 너무 실망했다. 바로 책이 상상력을 길러준다는 증거다. 도서실을 방치할 뉘고 자기의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치원생과 저학년들이 누워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실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은 역시 독서를 통해 가능하다. 학생들에게 내실있는 독서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인성교육 선두주자로의 발돋움

2007년9월14일 포천 송우4단지 고운마을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학교인 송우고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송우4단지 고운마을 시설의 편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 송우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 상호 협력 활동, 송우4단지 고운마을을 휴지 줍기, 청결활동, 어린이 집과 노인정 청소 및 캠페인 등으로 시민의식을 주저라는 내용의 협약을 맺게 되었다. 얼마 전, 송우4단지 고운마을에서 송우고 학생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감지 않은 시선이 주위의 눈총을 산적이 있었다. 그 후로 본의 아니게 송우고 모든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 송우고 전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어느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포장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정서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은 참으로 가혹하다 할 수 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 참다운 인간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인간으로 되어갈에 있어서 완전함은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항상 배우야 하는 존재이다. 현대는 생활양식이 급속도로 변화해 나가고, 그 변화를 맞추고 꾸준한 발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교육이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교육의 수준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교육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날이 높아 가고 있다.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등으로 인하여 정작 교육의 본질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교육이 본질적 가치를 상실한 채, 수단적 가치만이 강조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인성교육을 등한시한 교육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병폐로 인하여 몇 해 전 대학교수가 부모를 살해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입시위주의 학

습적 교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교육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실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 그 한사람은 또 다른 커다란 과오를 저지를 수 있으며, 또한 소수 무리의 실수를 다수의 실수인양 치부하는 것은 무관한 다수를 가해자로 내모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보살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이번 송우4단지 고운마을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으로 자매결연 협약을 맺게 되는데 대하여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아이들에게, 또한 이웃 주민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주부영예기자단 신복면지부장)



2007년9월14일 포천 송우4단지 고운마을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학교인 송우고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었다.